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16> 이터널 선샤인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8월호

# '결점 가득한 사랑' ... 당신이라면?

재개봉 열풍 로맨스 명작 고전 눈길  
짐 캐리·케이트 윈슬렛 주연  
시리즈온·왓차·애플TV 등 OTT 상영

해변 위 허름한 목조가옥 하나, 이곳은 헤어진 연인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마지막 순간을 형상화한 몽상 속 공간이다.

슈르레알리스트들이 최선을 다해 빚어낸 푸른 오븐재 같기도, 무구한 연인들의 마지막 피난처 같기도. 방 안까지 밀려오는 파도는 이별의 상징처럼 집을 삼킨다.

조엘은 상처받은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집을 떠올렸다. 현대 허물어져 가는 폐가로 환유된 그녀는 아직 '따뜻'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한 발랄함도, 푹 튀는 주황색 후드 티도, 시그넬과 괴짜(nerd)스럽던 모습마저 모두 사랑스럽다.

이윽고 거실까지 물이 차자 조엘은 밖으로 도망친다. 뒤편에서 "우리 이번에는 작별 인사라도 하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인사치레마저 없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우리 모두 안다.

무릎을 꿇고 뺨을 내어준다. "몬톡에서 만나"..... 나지막한 그녀의 속삭임과 두 불을 감싸는 긴 손가락들, 무언가를 암시하는 시퀀스를 끝으로 화면은 페이드아웃.

고전 로맨스 재개봉 열풍 속에서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눈길이 간다. '무한한 햇살'이라는 제목이 그저 좋았던 것, 작품에 달린 '미국 아카데미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 '런던 비평가 협회상' 등 수상하는 중요치 않았다.

작품명은 알렉산더 포프의 시 '엘로이즈가 아벨레르' 중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무결점의 사랑을 회귀하더니 어딘가 불안하지만, 외려 영화는 '결점 가득한 사랑' 이야기로 오래 유효한 마음임을 증명해 낸다.

어딘가 울적한 조엘(짐 캐리 분)은 벨런타인 데이에 회사를 뺏겨지고 몬톡 행 기차에 오른다. 그곳에서 파란 머리를 한 여인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과 처음으로 만나 순식간에 끌림을 느낀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가두행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젖는다. 이들은 흐려져가는 기억 속에서 현실과 몽상을 혼동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다. 서로 상처를 줬던 까닭에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Lacuna-라틴어로 잃어버린 조각)를 찾아가 연인의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지워냈음에도 이들의 본능과 추억은 우연히 문득행 기차에서 다시 사랑에 빠지도록 이끈다.

작품은 기억을 소재 삼았기에 빈번한 점프 컷의 활용, 비선형적 전개 등이 도드라진다. 과거와 현재가 선회하는 나선형 시퀀스들은 복잡함을 배가시켜, 어려운 플롯의 대명사 크리스토퍼 놀란 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오프닝 크레딧마저 러닝타임 20분이 지나서야 등장할 정도.

그럼에도 '이터널 선샤인'은 행복했던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각각 정반 산아 '연인들의 화합'이라는 결론(합·승)에 도달한다. 사랑이란 애와 증, 호와 오의 공존임을 밝히는 치밀한 영화적 변주이다.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는 것은 일시적 축복일 수 있지만, 망각은 상대와 나의 실존을 회피하는 면도 있다. 주인공들이 기억을 되찾고 오히려 서로의 추태, 만상과 파렴치를 목도한 뒤에야 행복을 마주하는 것은 영화에 투사된 피히테적 사유의 일면이다.

"넌 또 날 거슬러하고, 난 널 지루해할거야"라는 클레멘타인의 불안에 조엘이 그저 "괜찮아(Okay)"라고 말하는 복도 씬은 여운을 준다. 이들을 보면 타자를 향

한 사랑이란 모두 나 자신에서 비롯하는(혹은 향하는) 재귀적 감정일 뿐인 것 같다.

한편 배우들의 즉흥 연기도 영화의 완결성에 가세했다. 일라이저 우드와 마크 러팔로는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씬을 즉흥 연기했다.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또한 리허설 세션에서부터 즉흥적 애드리브를 활용했다.

영화 속 색채 언어도 기억에 남는다. 작중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은 자신의 감정과 맞물려 수시로 변하는데 처음에는 우울(blue)로 가득 찬 파랑이었다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는 붉게 색을 바꾼다. 이 밖에도 노을 지듯 한 주황은 식어가는 사랑을, 초록은 갓 피어나는 초연의 풋풋함을 신록에 빚낸 미장센이다.

앞서 풀어냈듯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부서지는 '기억의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몬톡에서 만나"라고 하는 씬이다. '몬톡(Montack)'이 룬아일랜드 동북부의 '몬타우크'나 그 어느 곳을 지칭하더라도 좋다. 영화는 나만의 '몬톡 해변'을 거닐게 하며 기억의 한구석을 헤집어 놓는 시간을 선사한다. Beck의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 같은 OST로 세네 아스트(cineaste-영화 애호가)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시리즈온, 왓차, 쿠팡플레이, 애플TV 등 OTT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예술은 기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 '허 프로젝트'·홍콩 '툴박스'...  
'숨 공장' 17일 ACC 예술극장 극장1

올해 정마는 유난히 긴데다 종잡을 수 없는 양상을 보였다. 사람들이 '도깨비 비'라고 불렀던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도깨비 비'는 앞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지구적인 화두다.

기후 위기를 모티브로 한 공연 '숨 공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어서 눈길을 끈다. 오는 17일 예술극장 극장1.

한국의 '허 프로젝트'와 홍콩의 '툴박스 퍼커션'이 협력한 이번 공연은 '예술은 기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후 위기 제 공자인 인간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주목한다.

작품명 '숨 공장'은 다분히 창작 의도를 담고 있다. 음절과 음절 사이를 뚫 것은 작품 의미를 사유할길 바라는 기획 의도를 반영했다. 작품 내용과 형식은 물론 무대장치 간소화, 제작과 연계된 환경보호 실천 등 다양한 방법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한국과 홍콩 문화와 환경의 교차로 국제협력의 의미를 살렸다. '허 프로젝트'는 한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여성인 안무가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며, 허 안무가는 2023-2025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툴박스 퍼커션의 공연 장면.

(ACC 제공)

SPAF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허 안무가는 "기후 변화를 모티브로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연대 의식을 만드는 것이 환경 보호의 시작이 아닐까싶다"고 작업 참여 의미를 밝혔다.

홍콩에 기반을 둔 협력단체 '툴박스 퍼커션'은 마카오 오케스트라 타악기 수석단원인 루이스 시가 지난 2012년 창단한 타악 연주 단체다.

ACC는 올해 '숨 공장'의 시범 공연 후 평가를 토대로 내년 본 공연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기후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연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연남



## 도시 재생 '테마마을, 지역을 살리다' 목포로 시간여행, 낭만바다 힐링섬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에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마을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 도시를 살리는 테마마을은 그렇게 탄생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8월호는 특집 '테마마을, 지역을 살리다'로 독자를 찾아가는. 잡초가 무성하던 폐교를 리모델링해 쇠락해가던 마을을 살린 고창 '책마을 해리', 주민들의 마음과 상상력이 피워낸 광주 각화동 '시화(詩畵)'가 있는 문화마을, 강원도 오지에서 문학의 매카로 변신한 인제 '만해마을' 등을 찾아 도시재생의 성공비밀을 들어본다.

'예향 초대석'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간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았다. 그의 영화인생을 담은 다큐 '영화청년, 동호(감독 김광)'가 '칸 클래식' 부문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그는 BIFF를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도약시켰고 이후에도 영화감독과 단역 배우 등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영화관 살리기'를 주제로 한 다큐를 준비 중인 그의 열정적인 영화이야기를 들어본다.

'화제의 문화현장'은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한다.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라는 주제를 내건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4월20일-11월24일)가 개막 4개월을 맞았다. 80개국 33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하이라

이트는 지아르디니 공원 전시관과 아르세날레 전시관 등 두 곳에서 열리는 본 전시다. 특히 옛 조선소를 무대로 한 아르세날레는 오래된 건물과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의 작품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을 예술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예향' 창간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치유와 힐링의 전담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키워드는 '치유'와 '힐링'이다. 빠르고 치열하게 살아야 버틸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숲속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자연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힐링은 어떠한 치료법보다 도움이 된다.

'맛과 맛 함께, 남도 유람'은 낭만 항구 도시 목포로 향한다. 1897년 개항한 목포는 100년 전 근대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원도심 투어와 고하도 '용마리 돌레길', 해상 케이블카, 대만동 '스카이 워크', 춤추는 음악분수 등 다채로운 여행지를 품고 있다. 흥어삼합 등 '목포 9미(味)'는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외에 필름 이선제가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600살 왕버들나무 '광주 괴고정수' 이야기와 오는 9월초 개막하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소식도 곁들인다. 기술로 예술의 상상력을 확장해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 광주시립오페라단 최철선입 예술감독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소설로 '구도의 길' 모색, 보성 출신 송기원 작가 별세

소설을 통해 구도(求道)의 길을 모색해 온 작가 송기원이 별세했다. 향년 77세.

1일 문학계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던 송기원은 속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31일 오후 숨을 거뒀다. 1947년 전남 보성 출생인 고인은 1967년 고교 재학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는 등 일찌감치 글재주를 인정받았다.

서라벌에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뒤 베트남전에 지원해 참전했고, 1974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소설이 당선돼 중앙 문단에 이름을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작가회의의 전신이자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문인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



의회(자살)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고은·윤홍길·이문구·황석영·이시영 등 자실 회원 30여명과 함께 1974년 자실 결성식에서 김지하 시인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소설집 '월행'(1979) '다시 월로에서'(1984), '숨'(2021), 시집 '그대 언살이 타쳐 시가 빛날때'(1983), '마음속 붉은 꽃잎'(1990) 등을 남겼다. 빈소는 대전 유성구 선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3일 오전 8시.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